

최경창 시에 나타난 닫힌 공간의 의미

정 일 권*

차 례

1. 서론
2. 닫힌 공간의 단절 양상
 - 2.1. 부조리한 세태의 투영
 - 2.2. 질곡의 여로에 대한 토로
3. 닫힌 공간의 접속 양상
 - 3.1. 충의에 대한 의지
 - 3.2. 인간에 대한 연민의 표출
4. 결론

| 국문초록 |

고죽의 심리는 집단 무의식과 자기 원형 심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고죽도 유교 강령이 뿌리 깊게 내린 시대정신과 상황의 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고죽의 詩는 當時 집단 무의식에 그의 타고난 원형심상이 작동함으로써 그의 심리작용이 표출된 結晶體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닫힌 시적 공간에서 시에 드러난 고죽의 두 가지 심리 추이를 통해 고죽의 시 정신을 탐구했다.

우선 고죽은 세상의 부조리한 면이나 자신의 질곡의 여정을 토로할 때면 닫힌 공간의 단절양상을 통해 진솔하게 그의 심상을 묘사하는 作詩法을 보였다. 이는 도가의 尙虛 문예관이 아닌 유가의 務實 문예관으로 그 실체를 선명하게 파악하여 지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장치였다. 또한 고죽은 이때에 닫힌 시적 공간을 배경으로 심리의 추이도 달아가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대상과 자신의 실태를 드러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려는 의도였다. 이로써 고죽은 페르조나의 특성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진솔한 면모와 만났다. 결국 고죽은 세상의 부조리한 면이나 자신의 질곡의 여정과 여과 없이 조우해 그 실존에 대한 文藝美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고죽은 충의에 대한 의지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염원을 표출할 때면 닫힌 공간의 접속양상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로 심리를 드러내는 作詩法을 보였다. 즉 고죽은 詩 속에 역사적 전고를 들어 충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심층적으로 갈무리했다. 또한 고죽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

* 조선대학교

한 애뜻한 마음을 진솔하게 토로함으로써 진정한 정감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정감은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대할 때면 더욱 짙진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고죽은 詩를 통해 닫힌 공간의 접속 양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숭고미를 일깨웠다. 그리고 이때의 공간은 신성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이어서 고죽은 이 틈 속에서 삶의 희망과 염원을 노래했다.

핵심어 : 고죽, 닫힌 공간, 대음암, 풍자, 굴원, 진시황

1. 서 론

16세기 中宗祖에 이르자 그동안 宋詩風이 주도했던 조선 詩壇에 唐詩를 본받으려는 기풍이 일어났다. 當時 일련의 문인들이 宋詩風의 문학관에 시 본연의 미의식을 추구하며 흥취와 서정성을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다. 孤竹 崔慶昌(1539, 중종34-1583, 선조16)도 이런 時流에 영향을 받아 당시풍의 作詩에 몰입하였고 목릉성세에 白光勳·李達과 함께 삼당시인으로 文名을 알렸다.

詩는 시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情과 志가 일체하는 外物의 인연을 맞으면 그 면모를 드러낸다. 고죽도 시를 만나기 전 들끓던 내적 갈망을 詩라는 형식을 통해 그대로 투영시키며 내적 조화를 찾았다. 고죽은 이 과정에서 심령의 반사경인 대상을 통해 진솔한 감정으로 妙悟와 興趣를 짙진하게 묘사했다. 고죽이 作詩에 있어서 당시풍을 추구한 것도 이런 그의 성정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의 호방한 성품과 청신한 기개가 作詩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 그만의 시풍이 완성된 것이다. 따라서 고죽의 시에는 시에 드리워진 그의 심리 양상이 시적 공간과 함께 잘 드러나 있다.

그동안 고죽에 대한 연구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뤄졌다. 삼당시인의 詩的 특징을 분석하면서 고죽 시에 대한 연구¹⁾가 있었고, 고죽의 시 정

1) 김금숙, 「三唐詩人の 詩에 나타난 世界 認識 研究」, 『漢文古典研究』 3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163-196쪽; 김중서, 「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批評 樣相」, 『漢文學報』 17, 우리한문학회, 2007, 309-358쪽; 김준옥, 「崔白詩의 唐風 形成 背景」, 『한국고시기문화연구』 3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161-188쪽; 조영임, 「三唐詩人の “仙界憧憬”에 대한 소고」,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203-225쪽.

신을 규명하기 위해서 고죽 시에 나타난 특질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²⁾가 있었다.

본고는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죽 시에 나타난 열린 공간의 의미에 대한 지난 논의³⁾에 이어, 詩想을 표출할 때 닫힌 공간을 통한 고죽의 심리표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고죽이 詩 공간을 닫힌 공간으로 하고 그의 심리를 詩의 대상에 따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거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끊어가면서 作詩 의도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고죽의 시 중에서 意象의 공간배치는 닫힌 양상을 취했으나 심리적으로는 열거나 닫는 시들을 중심으로 고죽의 시적 의도를 살펴보겠다.

2. 닫힌 공간의 단절 양상

2.1. 부조리한 세태의 투영

심리는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한 개인의 심리 형성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뤄진다. 즉 유전적 요소, 동기, 지적 수준 등과 같은 내적요인과 사회 규범이나 시대 상황 등과 같은 외적요인이 한 개인의 인격과 심리 형성에 관여한다. 이렇게 형성된 심리는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충돌로 인해 개개인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때 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행동의 근거는 개인의 심리 상태와 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찍이 현대 심리학자들은 통제를 심리학의 목표 중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이들은 대상에 대해 행동의 형태나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주는 ‘행동 통제력의 조건을 심리학자가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⁴⁾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심

2) 변종현, 「최경창 한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1, 동양한문학회, 1997, 125-160쪽; 안병학, 「崔慶昌의 詩世界와 삶의 安定性에 대한 懷疑」, 『泰東古典研究』 2,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1986, 91-124쪽; 유육례, 「에이즈와 최경창의 사랑의 시 연구」, 『한국에이즈 저널』 52, 한국에이즈학회, 2017, 273-292쪽; 정일권, 앞의 책, 237-262쪽; 정종대, 「최경창의 시와 주정적 세계」,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211-237쪽; 조영임, 「孤竹 崔慶昌의 風格과 詩世界」, 『개신어문연구』 16, 개신어문학회, 1999, 197-225쪽.

3) 정일권, 「최경창 시에 나타난 시적 공간의 의미」, 『韓國言語文學』 95, 韓國言語文學會, 2015, 237-262쪽.

리 작용도 그 심리가 형성된 근간이 무엇이든지간에 대상에 따라서 '고유의 행동 통제력'을 형성해 실제적 행동으로 드러낸다. 즉 심리 작용이 행동 통제력의 조건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한 개인의 행동이 결정되어 표출되기에 그 행동에 대해서 인과적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作詩의 과정에서 드러난 고죽의 심리 표출양상을 살펴서 그의 作詩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예술과 심미는 극히 복잡한 심리현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지나친 단순한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고죽의 시 정신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의 심리가 어디로 향해 있는지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의 작시의도가 시의 表裏에 심리의 흐름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屢遊京洛裡	자주 서울로 놀러 오는데
漸覺故人稀	점점 친구가 드물어짐을 느끼네.
古寺月還滿	옛 절에 달이 다시 가득하고
夜缸僧鬚依	밤배에 스님이 잠시 기대네.
西陵寒葉下	서릉에는 차가운 잎이 떨어지고
東路白雲飛	동쪽 길에는 흰 구름이 날고 있네.
歸去莫回首	돌아갈 때 고개를 돌리지 말고
千峯獨掩扉	일천 봉우리 속에 홀로 사립문을 닫고 있게.

〈送片雲歸五臺〉⁵⁾

케슈탈트심리학은 모든 현상을 하나의 완결된 형태, 즉 하나의 내부 중력장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예술과 예술작품 중에서 정감과 형식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관계라는 인식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정감과 생각을 '意象'이란 형상을 세워 표현한 것도 동일 구조물을 통해 상응하는 '감상자들의 정감의 감흥'을 의도한 시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4) Richard J. Gerrig, 이중환 외 역, 『심리학과 삶』, 파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3, 2-5쪽 참조.

5) 崔慶昌, 『孤竹集』, 五言律詩.

6) 이중헌, 곽수경 역, 『이중헌 미학강의』, 김영사, 2011, 162-167쪽 참조.

서울은 도성으로서 욕망이 꿈틀거리는 세속의 대표적 표상이다. 그곳은 많은 인파와 물산이 넘실대고 변화의 첨단에 있는 곳이다. 편운은 이런 변화한 세속의 공간을 자주 찾았다. 그것은 바로 故人⁷⁾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는 옛 친구들이 드물어졌다. 편운에게서 ‘故人’은 정서적 고향으로, 순박하고 익숙하고 변함이 없고 그리움과 정감이 넘치는 대상이었다. 그래서 모처럼 옛 친구인 고죽과 함께하니 달도 옛 절에 다시 가득했다. 달한 공간속에서도 반가운 정감이 ‘月還滿’으로 짙진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별을 앞 둔 편운이 밤배에 몸을 기대고 있다. ‘夜艇’이란 靜態意象과 ‘鬣依’란 動態意象이 이별을 앞 둔 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夜艇’은 서울이란 공간의 현실이 어두운 밤임을 보여준다. 이제 편운은 이런 현실을 뒤로 하고 오대산이란 공간으로 떠나는 길목에서 ‘鬣依’하며 머뭇거린다. 편운이 고죽과의 이별을 망설이며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한 것이다.

頸聯에서 고죽은 편운에게 현 실태를 ‘西陵’과 ‘東路’, ‘寒葉下’와 ‘白雲飛’을 서로 대조시켜 두 장면으로 부각시켰다. 이 장면은 당시 동서분당으로 대립하였던 혼탁한 정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路’은 線이며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는 의미이다. ‘陵’은 點이며 한 지점에 머물러 단절을 뜻한다. 그래서 동쪽 길은 이어져 있어 흰 구름이 날고 있지만 서릉은 단절되어 있기에 차가운 앞만 떨어졌다.

고죽은 尾聯에서 편운에게 서울의 현실이 그러하니 돌아갈 때 고개도 돌리지 말라고 했다.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오대산으로 떠나 일천 봉우리 속에서 사립문을 닫고 홀로 있으라고 조언했다. 이로써 詩의 화면은 파노라마처럼 서울이란 들판의 공간에서 오대산 일천 봉우리 속의 사립문을 넘어 사립문을 닫은 공간 속으로 공간이동이 이뤄졌다. 결국 고죽은 사립문 안의 공간이 편운이 지켜야 할 공간이자 심리의 중착점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처럼 고죽은 위 시에서 부조리한 세상을 대하고 동일 구조를 가진 意象을 통해 그의 심상을 냉엄하게 투영시켜 작사의도를 밝히고 있다. 즉 오대산으로 돌아가는 편운은 分黨으로 얼룩진 서울의 政爭과 단절하고 理想을 지향하는 고

7) 首聯의 ‘故人’은 판본에는 ‘古人’으로 되어 있으나 의미적으로 ‘故人’으로 바꿨다.

죽 자신의 심리를 표현한 동일구조의 대응물임을 알 수 있다.

九月十七夜 구월 십칠 일 밤에
 雲黑風頗奔 구름은 검고 바람은 자못 불었네.
 ………
 飛雨雜鳴雹 흘날리는 비가 세찬 우박과 섞여
 崩騰洒林園 무너지는 듯 솟아오르는 듯 숲에 뿌렸네.
 是時尙未穫 이때까지 아직 수확을 못하니
 禾穀遍郊原 벼와 곡식이 들에 널려 있네.
 ………
 何以供賦稅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바치리오.
 敢望具饗飡 감히 밥 지어 먹을 것을 바라겠는가.
 四隣絕晨烟 사방에 새벽 연기 끊어지고
 但聞哭聲喧 다만 우는 소리만이 시끄럽게 들리네.

〈雨雹〉⁸⁾

1577년 고죽은 영광군수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향하던 중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심해져 여주 이천에 있는 외삼촌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로부터 5년여 동안 고죽은 거의 은둔에 가까운 전원생활을 하며 사회의 참상을 그린 여러 편의 詩를 남겼다. 위 詩도 이 기간에 쓴 것으로 보인다.

9월 17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는 역사성을 담보하며 현장감을 부각시킨다. 추수를 앞 둔 눈에 때 아닌 우박이 내려 수확이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다. 거기에 전염병이 마을에 닥쳐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소와 돼지도 화를 면하지 못했다. 마치 난리가 난 듯 빈 마을이 많고 이상기후로 인한 장마와 병충해로 곡물의 피해를 커져 갔다. 재앙은 겹쳐 온다고 하지만 그 심각하기가 짝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天災가 분명했지만 고죽이 주목한 것은 人災여부였다.

세금을 내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지만 백성들은 세금이 두려워 감히 밥을 지어 먹지도 못했다. 빈 마을이 늘어나고 노약자가 쟁기질을 해야 하는 현

8) 崔慶昌, 앞의 책, 五言古詩.

실을 개선해줄 위정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방에 새벽 연기가 끊어지고 다만 우는소리만 시끄럽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상당부분 人災였다.

고죽 역시 위정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래서 고죽은 그 책임을 통감하여 意象과 정감을 닫힌 구조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객관적 삼자 입장에서 백성들의 실상을 그려나갔다. 詩로써 안녹산 난으로 인한 백성들의 참상을 고발했던 두보처럼 고죽 역시 당시의 참상을 짙진하게 묘사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써 고죽은 부조리한 세상의 투영으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그 참상을 공유할 여백을 갖게 했다.

門前車馬散如烟	문 앞의 거마가 연기처럼 흩어지니
相國繁華未百年	정승의 화려한 생활 백년도 못 가네.
深巷寥寥過寒食	궁벽한 마을에서 쓸쓸히 한식을 보내는데
茱萸花發古牆邊	수유포만 옛 담장가에 피었네.

〈大隱巖〉¹⁰⁾

위 詩는 허균의 『국조시산』에서 “풍자가 뼈에 사무친다”라는 평가와 함께 제목이 〈大隱巖南止亭故宅〉으로 되어 있다.¹¹⁾ 대은암은 서울 인왕산 아래에 있는 바위로 그곳에 남곤의 집이 있었다. 남곤은 當時 조광조 등 新進士類와의 갈등으로 1519년 기묘사화를 꾸며 이들을 제거한 뒤 영의정까지 올랐다. 만년에 남곤은 과거 행실을 자책하고 후환이 두려워 평생의 私稿를 태워버렸다. 남곤은 1527(중종22)년 3월에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며 文敬이란 시호를 받았다. 하지만 남곤은 사림의 집권 이후 1558년 관작과 함께 삭탈되었고 沈貞·洪景舟와 함께 己卯三凶으로 후대 사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9) 별로프는 심미 주체와 심미 대상과의 관계는 거리가 있으면서도 밀접해야 정감과 미감이 생겨 난다고 했다. 그런데 이 거리는 결국 '심리적 거리'이기에 심리가 변하면 거리도 변하여 그 '거리 두기'에 따라 그 정감과 미감의 강도가 결정된다. (이중텐, 앞의 책, 152-159쪽 참조)

10) 崔慶昌, 앞의 책, 七言絶句.

11) 허균, 『國朝詩刪』.

고죽은 남곤의 옛 집을 한식 날 지나면서 무상한 권력의 욕망을 〈大隱巖〉을 통해 풍자했다. 대은암을 찾은 고죽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냉철하게 대상과 조우했다.

‘門前車馬’는 정승의 화려한 생활을 단적으로 표현한 意象이다. 그런데 문전성시를 이뤘던 과거의 영화가 이제 ‘散如烟’했다. 고죽은 起句 7자 속에 ‘車馬’와 ‘烟’을 대조하고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해 부질없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동일 구조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承句에서 고죽은 화려한 삶을 쫓았던 정승 남곤의 생활이 결국 백년도 가지 못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이로써 고죽은 정감과 심리 작용을 중첩시켜 남곤에 대한 풍자를 강화했다.

轉句와 結句에서 고죽은 ‘深巷’과 ‘寒食’, ‘茱萸花’과 ‘古牆邊’이란 意象을 詩 공간에 배치했다. 이제 남곤의 옛 집 주변은 궁벽한 마을이 되었고 사람들은 쓸쓸히 한식을 보내고 있었다. 충신이자 효자인 개자추와 관련이 있는 한식은 주로 음력 3월 초경에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행사였다. 남곤이 생을 마감한 달이 3월이고 보면 내부의 중력장 구조를 동일 구조로 연관하려는 고죽의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結句에 등장하는 수유꽃은 고죽의 作詩 의도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意象임을 알 수 있다.

수유꽃은 3월 봄에 노란 꽃을 피우고 가을에 빨간 열매를 맺는다. ‘영원·불멸’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산수유는 重九節에 주머니에 담아 몸에 차고 다니면 邪氣를 물리친다는 풍습도 있었다. 이제 남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영원·불멸’을 의미하는 노란 수유꽃이 세속의 영욕을 비웃듯 만발한 것이다. 고죽은 이처럼 무심한 자연물을 통해 권력에 눈이 먼 인간을 풍자함으로써 인간의 권력욕에 대한 허무함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고죽은 詩 화면에 수유꽃이 핀 옛 담장을 등장시켜 권력욕의 상징인 남곤의 옛 집과 백성들의 삶이 있는 궁벽한 마을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켰다. 이로써 남곤의 옛 집은 닫힌 공간으로 남아 그 경계선에서 핀 辟邪의 수유꽃과 함께 위정자들에게 경종의 의미로 살아났다.

한편 大隱巖이란 詩題 역시 고죽의 시적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원래 大隱은 ‘大悟하여 속세를 초월해 속된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隱者’를 뜻한다. 일찍이 西晉의 王康琚는 〈反招隱〉 詩에서 “작은 은자는 산이나 수풀에 숨고 큰 은자

는 조정과 저자에 숨는다네.”¹²⁾라는 名句를 남겼다. 하지만 남곤은 柱下吏로 있
 디어 있었던 노자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남곤은 철저히 세속적인 인물이었고 자
 신의 권력욕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권세를 얻은 인물이었다. 그 숨김의 대상과
 본질이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 이처럼 고죽은 위 詩에서 意象을 남곤의 옛 집이
 라는 달한 공간으로 배치하고 그에 대한 정감과 심리 작용도 달아감으로써 권세
 에 굴하지 않는 작가정신과 풍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2.2. 질곡의 여로에 대한 토로

호방하고 자유분방했던 고죽의 삶은 그의 성품과는 달리 결코 순탄치만은 않
 았다. 문헌 자료를 보면 고죽은 관직에서 두 차례 파직을 당했다. 1576(선조 9)년
 종사관으로 북경을 다녀온 뒤와 1582(선조 15)년 종성부사로 제수된 뒤였다. 순
 탄할 것만 같았던 고죽의 벼슬길은 대의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문관이면서도 외
 직만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當時 고죽이 시대에 편승했다면 그의 벼슬길
 과 삶은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고죽은 불의와는 결코 결탁하지 않았고 大隱의
 정신을 끝까지 지켰다. 고죽은 굴곡진 자신의 심상을 詩로써 달래며 내적 조화를
 회복했다. 그런 의미에서 고죽에게 詩는 질곡의 삶을 극복하는 안식처이자 내적
 갈등을 치유하는 심상의 거울로서 스스로를 지탱케 하는 등대와 같았다.

고죽은 黨人이 아니었다. 그러나 고죽은 서인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만으
 로 분당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시
 의 부조리한 시대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 고죽은 거대한 역사의 수
 레바퀴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변방을 전전했고
 결국 폐병으로 객사하는 질곡의 삶을 살았다. 고죽은 그리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면 시적 공간의 화면을 달한 공간으로 설정하고 그의 심상을 담담하게 사실적
 으로 그려나가며 암울한 그의 심리를 공유하고자 했다.

罷官仍滯塞 관직을 파직 당하고 그대로 변방에 머물렀더니

有旨改新除 교지가 고쳐서 새로이 제수되었네.

12) “小隱隱陵藪 大隱隱朝市.”(『文選』, 권20 참조)

公輔方須用 공보에 장차 등용될 터
 忠良豈見疎 충량한 신하가 어찌 홀대 받겠는가.
 邊機獨賜對 변방기무로 임금을 독대하는 은혜를 받았고
 萬里幾封書 만리 길에서 몇 번이나 봉서를 보냈던고.
 自笑招羣議 스스로 우습도다 여러 사람의 논의를 부르니
 才名早是虛 재주 있다는 이름은 일찍이 헛되이 되었네.

〈贈會山府伯〉¹³⁾

위 시는 고죽이 會山府伯에게 준 시이다. 首聯에서 고죽은 회산부백이 파직 후에도 그대로 변방에 머물렀더니 교지가 고쳐져서 새롭게 제수되었다고 했다. 고죽은 그 이유를 頷聯에서 회산부백이 충량한 신하이기에 공보에 장차 등용될 것이니 애초에 소원함을 당할 리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회산부백은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로서 그동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기에 그의 재 등용은 당연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래서 고죽은 頸聯에서 회산부백이 변방기무로 임금을 독대하는 은혜를 받았고 스스로도 만리 길에서 몇 번이나 봉서를 보내며 그 직분을 다했음을 증거로 인정했다. 회산부백이 공보에 다시 등용되는 것도 이러한 능력과 충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제 고죽은 尾聯에서 시적 공간을 자신의 心思로 제한하고 그 심정을 짙지게 읊었다. 여기서 고죽은 회산부백과는 달리 여러 사람의 논의만을 부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대하고 지난 날 재주 있다는 명망이 일찍이 헛되이 되었다고 자조했다. 이렇듯 위 시는 회산부백과 유사한 처지에 있었던 고죽이 회산부백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무능과 부덕을 뼈아프게 되새긴 시였다.

상기했듯이 고죽은 관직에서 두 차례 파직을 당했다. 그런데 위 시는 정황으로 보아 그 중에서 1582(선조 15)년 고죽이 종성부사로 제수되었던 사건을 상기시킨다.¹⁴⁾ 當時 고죽은 보통 관직에 침체되어 大同察訪에 있었으나 비변사의 천거

13) 崔慶昌, 앞의 책, 五言律詩.

14) 이 시의 作詩 시기는 고죽이 종성부사로 부임한 1582년에서 성균관 직장에 제수된 1583년 3월 무렵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詩題에 있는 ‘贈’이란 말과 詩 正황에서 찾을 수 있다. 會山府伯은 회령부사를 달리 이르는 말인데 그에게 ‘贈’한다는 말은 고죽이 회령부사보다 직급이 낮지 않은 종성부사 시절에 이 시를 지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전후관계로 보면 이 시의 作詩 시기는 두

로 鍾城府使로 제수되었다. 하지만 고죽은 자급을 올렸다는 이유로 양사가 3개월 동안 논핵했고 부임 후에도 “군무를 닦지 않는다.”는 北帥의 장계가 이어지면서 여러 사람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움직임은 고죽에게 커다란 아픔이었는데, 특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장계는 고죽의 입장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經國濟世라는 선비정신이 원형 심상으로 자리한 고죽의 입장에서는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죽은 모든 것을 걸고 변방에서 절실하게 버티며 동일 구조를 가진 意象을 시 공간에 배치하여 위 詩를 통해 스스로를 관조했다.

한편 고죽은 이 일로 인해 결국 파직¹⁵⁾을 당했다. 그런데 고죽도 자급은 깎였지만 회산부백과 마찬가지로 교지가 고쳐져 1583(선조16)년 2월에는 방어사 종사관에, 같은 해 3월에는 성균관 정5품 직장에 곧 바로 제수되었다. 너무나 억울했던 이 사건은 고죽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도 되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너무 컸던지 고죽은 문관으로서 내직에 임명된 부임장을 손에 들고 서울로 가는 도중에 鏡城객관에서 객사했다. 따라서 고죽의 생애 마지막 詩일 가능성이 있는 위 詩에서 ‘재주 있다는 이름은 일찍이 헛되이 되었다’는 고죽의 말은 시사한 바가 크다.

童年長執綺	어린아이 때는 비단 속에서 자랐는데
晚節值艱難	만년에 와서는 어려움을 만났네.
守拙乖生理	졸렬함을 지키니 생리와 어긋나
移居近市闈	사는 곳을 옮겼는데 저자가 가깝네.
得錢還宿債	돈을 얻어 묵은 빚을 갚아주고
乞米始朝餐	쌀을 빌려 처음으로 아침밥을 지었네.
親友時來問	친구들이 때때로 찾아와 물어
途窮愧抗顏	앞길이 궁해 낯을 들기 부끄럽네.

〈謝友人送米〉¹⁶⁾

변의 파직 사건 중에서 두 번째 파직 무렵임을 알 수 있다.

15) “崔慶昌 詩人之有才者 沈滯常調 爲大同察訪 備邊司薦爲鍾城府使 鍾城戍役之地 而臺諫以陞級故 兩司俱發 論請改正 上素知其才 故論劾凡三朔 終不允 既赴鎮 又據他事論啓 竟削資罷職。”(『宣祖修正實錄』, 12年 6月 1日 參照)

위 詩는 고죽이 영광군수를 사직하고 은거에 가까운 삶이 지속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지은 시로 보인다. 일찍이 고죽은 도가적 삶을 지향해 귀거래와 안빈낙도를 예찬하였다. 하지만 위 詩에서 고죽은 가난에 처한 현실을 진솔하게 토로하고 자신의 치부를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는 ‘도가의 尙虛 문예관’이 아니라 ‘유가의 務實 문예관¹⁷⁾’을 보인 것이다. 즉 고죽은 이 詩에서 ‘시문을 함축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음미하고 다그치지 않으며 여유롭게 노니는 운치’를 추구하지 않고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감상자로 하여금 뚜렷한 인상을 남기게 했다.

首聯에서 고죽은 ‘童年’과 ‘晩節’, ‘紈綺’와 ‘艱難’이란 意象을 대비시켜 현재 자신의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남부럽지 않았던 삶이 만년에 이르자 艱難으로 허덕였다. 그러다 보니 문득 문득 자신도 모르게 웅졸해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곤 했다. 이에 頷聯에서 고죽은 사는 곳을 옮겼는데 그곳은 하필 저자에 가까웠다고 했다. 하여 많은 친구들이 오다가다 자연스럽게 자주 들렀다. 어쩌면 이것은 위축되는 스스로의 심상을 극복하려는 고죽의 적극적인 성품의 발로였다.

頸聯에서 고죽은 돈을 얻어 목은 빛을 갚아주고 쌀을 빌려 처음으로 아침밥을 지었다. 그야말로 하루 벌여 하루를 지내기도 힘든 현실이었다. 쌀을 빌리는 선비 고죽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도 經國濟世와 忠君愛民이란 선비정신과 명예를 중시했던 고죽이고 보면 그 심정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尾聯에서 고죽은 친구들이 때때로 찾아와서 물어보니 앞길이 궁해 낫을 듣기 부끄럽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검증을 통해 단란 공간으로 詩의 화면을 채우고 심리도 단절시켰다. 이처럼 經國濟世를 지향했던 고죽은 스스로의 앞가림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詩에 담담하게 투영시켜 자신의 무능함을 투명하게 관조하고 있다.

16) 崔慶昌, 앞의 책, 五言律詩.

17) 도가의 尙虛문예관이 사람의 사상 감정을 시비나 이해로부터 완전히 초월한 곳의 미감으로 인생을 전화시키고자 하나 유가의 務實문예관은 전체적으로 현실의 공리와 함께 연결되어 있지만 예법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욕망을 인정하였다. (리빙하이, 신정근 역, 『동아시아 미학』, 동아시아, 2010, 520-534쪽 참조)

3. 달한 공간의 접속 양상

3.1. 충의에 대한 의지

심리는 장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구성된 것이며 행위의 지향성과 선택을 결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 동양에서는 ‘사회적 이상이나 종교적 가르침의 수단으로 자신의 마음을 닦고 끌어올리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수용 권장¹⁸⁾했다. 이러한 동양의 미학 윤리는 공자의 文質彬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와 예술을 ‘사회 이상을 실현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인격을 빚어내는 수단’¹⁹⁾으로 여겼다. 경학이 선비정신의 근간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틀이 當時 지도층의 원형심상으로 자리했음은 분명했다. 창작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흥취를 중시했던 고죽이지만 그 역시도 그 틀을 자양분으로 삼아 성장했던 것이다.

역사적 사건은 이미 결정된 결과물이기애 어떤 변동도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시인들은 시공이 고정된 달한 공간의 이런 역사적 사건을 詩로써 재조명하고 논평하면서 그 정감과 인식에 따라²⁰⁾ 심상을 열거나 닫곤 했다. 고죽도 역사의典故를 들어 그의 심상을 펼쳤다.

楚國傷讒日	초나라에서 참소를 당하던 날
懷沙怨屈原	돌을 안은 굴원이 원망했네.
湘江流不歇	상강은 흘러 그치지 않으니
千載寄遺魂	천년 동안 남은 혼이 붙어 있네.

〈楚調〉²¹⁾

멈춰 있었던 時空의 초점이 詩人の 손에서 時空의 확장으로 다시 살아났다. 굴원은 초나라 懷王의 신임을 받아 젊어서부터 左徒의 중책을 맡고 三閭大夫를

18) 최상진 외, 「한국인의 마음」, 『동양심리학』, 지식산업사, 2002, 407쪽 참조.

19) 이중헌, 앞의 책, 377쪽 참조.

20) 吳戰壘, 유병래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180쪽 참조.

21) 崔慶昌, 앞의 책, 五言絶句.

지낸 인물이었다. 하지만 굴원 역시 고죽과 마찬가지로 政爭에 휘말려 두 차례나 배척과 추방을 당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권세와 영달에 눈이 먼 奸臣 靳尚과 鄭袖, 회왕의 아들 子蘭과 같은 부류가 있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直言을 아끼지 않던 굴원은 결국 죽음으로써 혼탁한 세상에 경종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굴원은 “내 장차 이로써 군자들이 본받을 선례를 남기고자 하노라!”²²⁾며 〈懷沙賦〉를 지었다.

楚調는 초나라 지역의 樂曲을 말한다. 굴원의 『초사』는 그 음조가 비애로 가득 차있다. 위 시에서 고죽은 굴원의 典故를 통해 그 비통함을 같이하고, 비애 속에 드러난 굴원의 충정과 절조에 심리를 열어 화답했다. 고죽은 起句와 承句에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알렸다. 억울한 참소를 당하고 〈懷沙賦〉로 억울함과 결의를 보였던 굴원은 자신의 숭고한 뜻을 전하려 끝내 돌을 안고 상강에 투신했다. 그리고 역사는 굴원을 내친 초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패망했음을 알리고 있다.

굴원의 죽음이 숭고한 것은 선례를 남겨 후대에 경종을 울리려는 그의 소신 때문이었다. 고죽은 轉句와 結句에서 천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굴원의 의기가 서려 있는 상강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닫힌 공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시공이 하나로 관통했다. 이에 고죽의 심리도 천년을 이어온 굴원의 혼에 활짝 열려서 詩로써 그 의기와 同振했다. 역사적 배경 화면에 〈懷沙賦〉곡조가 울리고 의기의 파동이 결합되어 意境의 함의가 심화되었다. 이제는 초나라도 영달에 참소했던 亂臣들도 소멸되어 없어진 지 이미 천년이 넘었다. 하지만 굴원의 혼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고 상강이 마르는 날까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고죽도 바로 이 점을 직시하고 굴원이 그랬듯이 역사적 교훈이자 후대의 경종으로 詩를 통해 이를 일깨우고 있다.

日暮雲中火照山	해 저문 운중에 불빛이 산을 비치니
單于已近鹿頭關	선우는 이미 녹두관에 이르렀네.
將軍獨領千人去	장군이 홀로 천 명을 이끌고 가서

22) 屈原, 〈懷沙〉.

夜渡蘆河戰未還 밤에 노하를 건너 싸우고 돌아오지 못했다.

〈過楊照廟有感〉²³⁾

위 詩는 고죽이 1576년 사행 도중 前屯衛에 있는 左軍都督府都督同知 楊照의 楊忠壯祠를 지나면서 느낌이 있어 그 감흥을 그렸다. 양조는 요동총병관으로 差遣되어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三百里에 달하는 遼東邊牆의 축조를 주관하는 등 변방 수비에서 지대한 활약을 했다. 양조는 청렴결백한 관리가 되겠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부채에 ‘冰清玉潔’이란 문구를 필사하여 지녔고, 자신을 중용한 황제의 은혜에 감격해서 몸 앞과 등 뒤에 각각 ‘盡忠報國’이란 글귀를 새기고 다녔다. 이처럼 양조는 평생 忠君愛民을 실천하며 그 임무를 충실히 완수했다. 수 자리에서 근무했던 고죽에게 이런 양조와의 만남은 많은 감흥을 일깨웠다.

楊忠壯祠에 선 고죽에게 문득 밀려온 상념은 양조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해가 저 어둑해진 산에 붉은 불빛이 비쳤다. 선우가 이미 녹두관에 이르렀기에 그 불빛은 전쟁으로 인해 끔찍한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意象이었다. 달한 공간의 어두운 詩的 배경에 참상의 불빛이 타오르며 색채 변화가 긴박함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양조는 천 명의 병사와 함께 밤에 노하를 건너 적진을 급습했었다. 하지만 양조는 불행하게도 그 戰場에서 화살을 맞고 돌아오지 못했다.

이처럼 고죽은 위 詩에서 역사적 사실을 꾸밈없이 담담하게 묘사하여 ‘未還’이라는 장중한 哀傷의 깊이로 시적 감흥을 극대화했다. 즉 ‘未還’이라는 動態意象이 긴 여운을 줌 양조의 의기에 젖게 하는 시적 장치였다. 또한 고죽은 심리를 열어 객관적 제삼자의 입장으로 과거의 사건을 楊忠壯祠 현장에서 기술함으로써 현실을 초월해 이미 양조의 전장 속에 함께했다. 이로써 고죽은 양조의 뜨거운 충정이 고죽의 가슴을 통해 감상자의 가슴을 울리는 시적 메커니즘을 완성했다. 이런 정황으로 허균은 이 詩를 ‘唐人의 수준에 못지않으니 중원에서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다.’²⁴⁾고 했다.

23) 崔慶昌, 앞의 책, 七言絕句.

24) “此詩 不減唐人高處 直乎見賞於中原也.” 許筠, 『惺所覆瓿藁』, 「鶴山樵談」

採藥求長生 약을 캐 장생을 구하는 것이
 何如孤竹子 어찌 고죽군의 자식들과 같을꼬.
 一食西山薇 한번 서산의 고사리를 먹으며
 淸風猶不死 청아한 품격 아직까지 죽지 않았네.

〈感興〉²⁵⁾

위 詩는 두 가지 典故가 등장한다. BC 221년 진시황은 30세의 나이로 천하를 통일하고 이듬해에 스스로 황제의 칭호를 붙였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죽음마저 초월하고자 했던 진시황은 44세 되던 해에 한중·후공·석생을 시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신선의 약을 구하게 했다. 하지만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는 수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BC 210년 50세의 나이로 沙丘平臺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고죽군의 자식, 백이·숙제는 상나라가 주나라에 멸망하자 수양산에 은거해 고사리만 먹으며 周武王에게 항거했다. 그들은 불충과 불효를 저지른 주무왕을 풍자해 〈채미가〉를 짓고 주나라 곡식은 먹을 수 없다며 결국 굶어서 죽었다. 고죽은 起句와 承句에서 불사약을 구했던 진시황과 서산에서 고사리를 먹었던 백이·숙제를 詩 화면에 불러들였다. 그리고 고죽은 ‘何如’로써 장생을 구한 진시황의 욕망과 절의를 지킨 백이·숙제를 대비시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不死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고죽은 轉句와 結句에서 고죽군의 자식들과 관련된 고사리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겼다. 그것은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모두를 믿지 못한, 그리고 沙丘平臺에서 이미 죽었지만 또 다른 욕망자들인 호해·조고·이사에 의해 시체가 썩도록 방치되었던 진시황²⁶⁾의 불로초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백이·숙제의 고사리는 청아한 품격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칭송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고죽에게서 불로초는 바로 청아한 품격을 가진 고사리였던 것이다. 진시황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세세토록 그 아름다운 향기로 不死를 이뤘을 것이다. 고죽은 ‘孤竹子’에서 孤竹이라는 자신의 號²⁷⁾를 상기하면서 청아한 품격의 고사리를 마

25) 崔慶昌, 앞의 책, 五言絶句

26) 司馬遷, 『史記』卷6, 秦始皇本紀 참조.

27) 崔慶昌의 본관은 海州이다. 그런데 海州의 古名은 백이·숙제의 孤竹國과 같은 孤竹이었고 海

음에 되새기며 詩로써 그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청명한 것이다. 결국 육신이 아니라 정신으로 살아 있을 때 그 한정된 공간은 不死의 힘을 갖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고죽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디로 향해있는지 알 수 있다.

3.2. 인간에 대한 연민의 표출

심리의 형성과 작용은 복잡하고 미묘하다. 즉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충동으로 인해 발현된 심리는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어떤 심리는 不動의 모습을 유지한다. 용에 의하면 윤리적 측면도 인간 마음에는 집단규범에 의한 도덕적 기준이 있고, 이와는 다른 그 개체의 원초적인 양심이 그 무의식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자기원형의 윤리적 측면²⁸⁾인데 그 작동도 참으로 묘하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서 드러난 심리는 무엇에서 또는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번 발현된 심리는 잠재된 그 형체를 드러내게 되어 그 드러난 심상을 통해 심리의 양상은 상당부분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山下踈籬半掩門 산 아래 성긴 울타리에 반쯤 문은 닫히고
豆花秋雨近黃昏 콩 꽃에 가을비가 내리는데 황혼이 가깝네.
相逢偶是抱病夕 서로 만났지만 우연히 병을 앓고 있는 밤이기에
悄悄懸燈無一言 근심스레 등만 걸어 놓고 말 한마디 못했네.

(贈片雲)²⁹⁾

위 詩는 고죽이 병을 앓고 있는 편운에게 意象을 닫힌 공간으로 배치해 자신의 애뜻한 마음을 담아서 준 詩이다. 고죽은 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기에 벼를 만난다는 기쁨에 한달음에 뛰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산 아래 성긴 울타리에 문이 반쯤 닫혀 있었다. 상황에 따라 意象에 대한 심상은 변하기 마련인데 이

州에도 수양산이 있었다. 이로부터 최경창의 號 '孤竹'은 海州 崔氏라는 자신의 얼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고매한 인품과 節義의 상징인 고죽국의 백이·숙제를 상기시킨다. 무엇보다도 孤竹 崔慶昌의 삶 자체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孤竹의 節操를 보여주었다.

28) 이부영, 앞의 책, 139-140쪽.

29) 崔慶昌, 앞의 책, 七言絕句.

경우는 분위기가 웬지 심상치 않았다. 고죽은 성긴 울타리라는 意象을 통해 친구의 위태로운 몸 상태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는 울타리가 외부와 내면의 경계로서 내면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타리 문도 반쯤 닫혀져 있었다. 문이 반쯤 닫혀져 있음은 반쯤 열려 있음과 동일했다. 하지만 고죽은 열림이 아닌 닫힘의 표현으로 시적 분위기를 엄숙하게 가져갔다.

그런데 이때 콩 꽃이 피어 있는 가을에 비가 내리고 황혼이 가깝다. 안타깝게도 결실을 앞둔 콩 꽃이 ‘秋雨’와 ‘近黃昏’에 부딪쳐 있는 것이다. 고죽은 자신의 안타까운 심상을 이런 意象의 필터를 통해 心象化했다. 그리고 고죽은 이런 복잡한 심리를 집 밖의 意象으로 배치해서 화려한 필치로 先景에 투사시켰다. 이로써 벗에 대한 고죽의 심난한 심사가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고죽은 後事부분에서 담백하고 유연한 필치로 방안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불안하고 부산했던 외부 경물과는 달리 방안에 들어온 고죽은 등만 걸어놓고 말없이 벼를 격려했다. 어두운 밤에 말없이 따뜻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등불이 바로 고죽에게는 벗의 의미였다. 이처럼 고죽은 結句에서 긴박한 호흡을 늦추고 心象을 열어 벗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벗과의 따뜻한 교감을 그렸다.

誰家搗紈杵	누 집 비단을 다듬는 방망이가
一下一傷情	두드릴 때마다 마음을 슬프게 하는고.
滿地秋風起	땅 가득히 가을바람이 일어나고
孤城片月明	외로운 성에 조각달이 밝네.
淒清動霜葉	쓸쓸하게 서리 맞은 잎이 나뒹굴고
寂寞入寒更	적막하게 차가운 시각에 접어드네.
征客關山遠	나그네는 관산이 먼데
能聽空外聲	공중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네.

〈御題搗紈〉³⁰⁾

위 詩는 ‘비단을 다듬이질 한다[搗紈]’이란 御題에 따라 지은 詩이다. 고죽은 홀

30) 崔慶昌, 앞의 책, 五言律詩.

로 조각달을 바라보며 성에 있었다. 시적 공간이 ‘孤城’이란 닫힌 공간 속에서 쓸쓸한 여운으로 가득했다. 이때 고요한 적막을 깨고 방망이 소리가 들려왔다. 고죽은 곧바로 首聯부터 방망이 소리를 등장시켜 詩 전체 내외를 방망이 소리로 채웠다. ‘一下一’에서 방망이 소리는 메아리처럼 겹쳐 울리고 곳곳에서 다듬이 소리가 들리는 효과를 일으켰다. 그저 방망이 소리만 들었는데 두드릴 때마다 고죽의 마음은 슬픔이 짙어졌다. 고죽은 詩의 처음에 ‘誰家’라 하여 자신의 심상을 뒤흔드는 방망이 소리의 출처를 따라갔다.

어느새 주변은 땅 가득히 가을바람이 찾아와 푸르렀던 이들도 낙엽이 되어 뒹굴고 있었다. 그 꽃다운 시절도 저물어 가고 城이란 닫힌 공간에서 짝을 잃고 쓸쓸히 있는 자신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보니 방망이 소리가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것이 바로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이의 애달픈 두드림이었기 때문이었다.

尾聯에서 고죽은 환청처럼 공중 밖에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에 다시 잠겼다. 고향이라는 공간과 현실 공간이 중첩되면서 그 감흥을 더욱 깊게 했다. 그 순간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은 정감이 처연함을 넘어 처량했다. 이처럼 고죽은 시의 本末을 다듬이 소리로 채워 넣어 죽도록 보고 싶은 사랑하는 이에 대한 意境을 드러냈다. 따라서 그 방망이 소리는 사랑하는 이를 그리며 간절히 두드렸을 고죽 내면의 다듬이질 소리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죽은 염정시를 통해 폐쇄된 공간에 살던 여인들의 애달픈 심사를 함께 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고죽은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자신의 정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러한 정감은 단순히 염정의 경우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힘없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여기서 고죽의 詩는 진솔한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인간 존재에 대한 연민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風雪石門路 눈보라 치는 석문로에
 暮歸何處僧 어느 곳 중이 저물어 돌아가는고.
 遙知隔溪寺 멀리 짐작컨대 시내 건너 절

荒蔓出踈燈 거친 덩굴 사이로 드물게 등불이 나와 있을 것이네.

〈僧軸〉³¹⁾

위 詩는 눈보라치는 석문로를 배경으로 절로 돌아가는 스님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렸다. 날도 저물고 그 모진 눈보라에도 스님의 행보가 마냥 여유롭다. 그 거친 세파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만 걷고 있는 것이다. 고죽은 그런 스님의 모습이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그 비밀이 궁금했다.

이제 고죽은 그 비밀을 짐작해 봤다. 그것은 아마도 스님이 언제나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특수 공간으로 눈보라 치고 거친 덩굴이 쳐져 있는 이 공간 너머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곳은 시내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었다.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다른 공간 경계로 들어감을 의미했다. 그 공간에는 깜박이는 등불이 항상 스님을 기다리고 있어 스님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거친 덩굴사이로 새어 나오는 등불이 눈보라치는 석문로 마저 따뜻하게 안았다. 이렇게 고죽은 눈보라치는 석문로의 닫힌 공간에서 스님을 통해 또 다른 닫힌 공간을 발견했다.

고죽이 발견한 그 공간은 바로 귀소 공간이자 신성 공간으로 치유의 공간이었다. 고죽은 그 닫힌 공간에서 여유로운 스님의 행보에 대한 단서를 찾은 것이다. 한 줄기 불빛을 통해 이르는 그 공간이 있기에 숨을 쉬고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것이다. 고죽은 위 詩에서 등불을 통해 그렇게 희망과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4. 결 론

고죽의 심리는 집단 무의식과 자기 원형 심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형성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고죽도 유교 강령이 뿌리 깊게 내린 當時 시대정신과 상황의 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결국 고죽의 詩는 當時의 집단 무의식에 그의 타고난 원형심상이 작동함으로써 그의 심리작용이 표출된 結晶體

31) 崔慶昌, 앞의 책, 五言絶句.

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닫힌 시적 공간에서 시에 드러난 고죽의 두 가지 심리 추이를 통해 고죽의 시 정신을 탐구했다.

우선 고죽은 세상의 부조리한 면이나 자신의 질곡의 여정을 토로할 때면 닫힌 공간의 단절 양상을 통해 투명하고 진솔하게 그의 심상을 묘사하는 作詩法을 보였다. 즉 자신의 성찰과 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교나 미사여구를 최대한 지양하고 그 실태를 단백하게 사실적으로 그린 것이다. 이는 도가의 尙虛 문예관이 아니라 유가의 務實 문예관으로 그 실체를 선명하게 파악하여 지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려는 장치였다. 또한 고죽은 이때에 닫힌 시적 공간을 배경으로 심리의 추이도 달아가는 기법을 사용했는데, 이 역시 대상과 자신의 실태를 드러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려는 의도였다. 이로써 고죽은 '내가 순수한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남과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생각한다는 페르조나의 특성³²⁾을 벗어나고 자신의 진솔한 면모와 만났다. 결국 고죽은 세상의 부조리한 면이나 자신의 질곡의 여정과 여과 없이 조우해 그 실존에 대한 文藝美를 드러냈다.

다음으로 고죽은 충의에 대한 의지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염원을 표출할 때면 닫힌 공간의 접속 양상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로 심리를 드러내는 作詩法을 보였다. 즉 고죽은 詩 속에 역사적 전고를 들어 충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심층적으로 갈무리했다. 이는 대비된 전고를 들어 역사적 사실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遺魂'·'未還'·'何如'와 같은 절제된 詩語로 이면에 숨겨진 역사적 의의를 찾아가게 하는 장치였다. 또한 고죽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들뜨고 광적으로가 아니라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토로함으로써 진정한 정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감은 질곡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대할 때면 더욱 뾰족하게 드러났다. 이처럼 고죽은 詩를 통해 닫힌 공간의 접속 양상으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송고미를 일깨웠다. 그리고 이때의 공간은 신성 공간이자 치유의 공간으로서 고죽은 이 틈 속에서 삶의 희망과 염원을 노래했다.

32)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5, 97쪽.

참고문헌

1. 자료

- 『朝鮮王朝實錄』.
崔慶昌, 『孤竹集』.
許筠, 『國朝詩刪』.
許筠, 『惺所覆韻藁』.
屈原, 「懷沙」.
『文選』.
司馬遷, 『史記』.

2. 논저

- 김금숙, 「三唐詩人の 詩에 나타난 世界 認識 研究」, 『漢文古典研究』 32, 한국한문고전학회, 2016, 163-196쪽.
(UCI : G704-002001.2016.32.1.009)
- 김중서, 「詩話에 나타난 三唐詩人에 대한 批評 樣相」, 『漢文學報』 17, 우리한문학회, 2007, 309-358쪽.
(UCI : G704-001598.2007.17.1.008)
- 김준옥, 「崔白詩의 唐風 形成 背景」,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1, 한국시가문화학회, 2013, 161-188쪽.
(UCI : G704-001062.2013..31.005)
- 리빙하이, 신정근 역, 『동아시아 미학』, 동아시아, 2010.
- 변종현, 「최경창 한시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11, 동양한문학회, 1997, 125-160쪽.
- 안병하, 「崔慶昌의 詩世界와 삶의 安定性에 대한 懷疑」, 『泰東古典研究』 2, 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1986, 91-124쪽.
- 吳戰壘, 유병례 역, 『중국시학의 이해』, 태학사, 2003.
- 유육례, 「에이즈와 최경창의 사랑의 시 연구」, 『한국에이즈 저널』 52, 한국에이즈학회, 2017, 273-292쪽.
(UCI : G704-001007.2017.52..016)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15.
- 이중텐, 곽수경 역, 『이중텐 미학 강의』, 김영사, 2011.

정일권, 「최경창 시에 나타난 시적 공간의 의미」, 『韓國言語文學』 95, 韓國言語文學會, 2015, 237-262쪽 참조.

(UCI : G704-000390.2015..95.023)

정종대, 「최경창의 시와 주정적 세계」,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211-237쪽.

조영임, 「孤竹 崔慶昌의 風格과 詩世界」, 『개신어문연구』 16, 개신어문학회, 1999, 197-225쪽.

_____, 「三唐詩人の "仙界憧憬"에 대한 소고」,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203-225쪽.

(UCI : G704-000619.2004..12.009)

최상진 외, 「한국인의 마음」, 『동양심리학』, 지식산업사, 2002.

Richard J. Gerrig, 이종환 외 역, 『심리학과 삶』, 파이스에듀케이션코리아, 2013.

| Abstract |

A Study on the Meaning of Closed Space Shown in Choi Gyong-Chang's Poetry

Jeong, Il-gwon

It is well-known that Go Juk's psychology was derived from several factors including collective unconsciousness and his own imagery. Therefore, he could not be freed from the spirit of the age and the situation framework in which Confucian principles were deeply rooted. After all, it was discovered that his poetry was resulted from his psychological action when his native imagery worked on collective unconsciousness. Based on the things mentioned abo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pirit of his poetry through his psychology revealed in his closed poetic space.

First of all, Go Juk described his imagery transparently and honestly through severance of space in expressing absurdity of society and his journey of fetters. He intended to clearly show his own image by identifying himself based on falsehood as one of Confucian points of view. Also, he used a method of closing psychological change on the background of the closed poetic space. It was an intention to reveal his real identity and express his own will naturally. So, Go Juk was freed from characteristics of persona and faced with his honest identity. Readers were impressed by literary beauty when they encountered absurdity of society or Go Juk's journey of fetters.

Then, Go Juk gave a focus on psychology with positive attitude through connecting images of closed space while he expressed the will of loyalty and wish and compassion for humans. That is, Go Juk finished his will or faith with loyalty by presenting antique stories in his poetry. Also he expressed true affection to whom he loved honestly, not lunatically. Such feeling was more truly expressed when he met common people who lived a life of fetters. Thus, Go Juk reminded people of sublime beauty through connecting images of closed space in poetry. The space was space of holiness, sacrifice and healing, and was full of catharsis in which he sang hope and wish for life.

Key words : Go Juk, closed space, Daeunam, satire, Qu-Yuan, Qin Shi Huang

투고일 : 2018년 1월 15일 심사기간 : 1월 30일 - 2월 14일 게재확정일 : 2월 15일